

정부 보건정책 사업추진 방향



조 병 루

1. 서 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사회 발전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민의료 요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문제 또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울러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도 노령화 되고 사회구조 또한 다원화, 복잡화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보건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각종공해등 환경문제 그리고 생활환경과 식생활양상의 변화, 노령인구의 증가등으로 질병양상도 변화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 노인병, 산업

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 질병치료 위주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적절한 수준의 건강유지 내지 난치병의 완전치료 위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건사업의 정책도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개인 건강과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사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보건사업에 대한 대국민 계도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요구되는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괄목할만한 향상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86년을 기준으로 할때 남자 64.9세, 여자 71.3세로 개발도상국의 평균수명 55세 보다는 훨씬 높으나 선진국 수준인 70세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질병양상도 크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콜레라,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등 급성전염성 질환은 급속하게 감소 되는 반면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후천성 면역결핍증, 폰티악열병 및 렙토스피라증 등 전에는 없었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질병양상의 변화와 함께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사회적으로도 변천하여 인구구조중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문제, 급성전염병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성인병 및 정신질환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료자원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국가경제적 범위내에서는 꾸준한 투자를 계속하여 적정 국민건강수준의 보장에는 아직도 부족하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시설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부족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의료인력의 경우 그동안 국민의료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여 양적인 확충은 충분히 되어 왔다.

그러나 과잉인력 또는 불완전 활용은 투

자의 낭비가 되고 과잉진료를 유발할 소인이 된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지역 편재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최근 소득의 향상과 의료보장 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대, 의료공급의 증대 그리고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3. 향후 발전방향 및 대책

진술한 내용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전체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정책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국민보건 문제의 파악에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정책의 입안과 의사 결정 과정에는 각계각층의 참여로 합리성이 보장되고 정책 목표가 구체화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는 공공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민 건강달성을 위하여는 개인보다는 집단중심으로, 진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하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단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사회단체등 민간조직과 공공기관의 보건교육의무를 강화하고,

둘째, 국민보건증진에 역기능적인 모든 활동은 가능한한 억제하며 반대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법규를 정비하며,

-국민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요원은 보건교육 활동을 의무적인 업무로 인식, 실천하게 하고,

-교육훈련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는 건강의 중요성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생활화 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직무 교육과정 속에 보건에 대한 교과과목을 삽입하게 하며,

-보건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봉사기관 및 민간단체와 국민 보건교육 활동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민보건과 관련된 상업조직과 협력 홍보체제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 국민건강 수준은 소득 향상에 따른 국민보건의식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크게 향상되어 왔다.

1977년부터 실시된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는 국민의 의료이용

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도 크게 확충되어 왔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가운데서도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해 가면서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향상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증가되고 국민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의료시혜 요구도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공급 측면에서 접근성과 형평성도 요청되고 있다.

둘째, 공업화, 산업화, 인구노령화에 따라 보건의료측면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질병 발생 양상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염성 및 급성질병 위주의 보건문제로부터 고혈압, 심장병, 암, 당뇨병, 사고등과 같은 비전염성 또는 만성병, 성인병과 정신보건문제 그밖에 사회비리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관련 보건의료인과 관련단체 그리고 언론계, 학계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